



2025 가을 제42호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제3회 예술이 樂」 공연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묻고, 현장에 답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은
첫째, 학교에서의 비본질적인 업무를
교육청 또는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학교 밖 이관’
둘째,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업무경감 및 효율화’
셋째, 학교급·학교특성·직종별 여건을 촘촘하게 반영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지원 방안 추진 상황의 지속적인 점검과
새로운 과제의 발굴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보

- 04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 발표
- 08 누구나 누리는! 모두가 만족하는! 다 같이 만들어가는! 「인천형 늘봄학교」
- 10 「나에게 ON 방학」, 읽견쓰로 컨 성장 스위치
- 12 중등 뽀뽀와 함께하는 방학 5주 프로젝트
- 14 인천 초등 수업산책 2025 이야기
- 16 2025년 학생SW캠프 · AI해커톤 챌린지

특집

- 18 마을에서, 마을과 함께 완성하는 학교예술교육
- 22 '2025 세계 식생활 문화 체험 한마당' 그 성공적인 여정!
- 24 제15차 람사르습지협약 총회와 생태전환 교육
- 28 알면 보물! 우리의 미래 교육을 보고 싶으면 강화를 가라
- 32 북구도서관, '신트리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나다!

캠페인

- 34 읽고 · 쓰고 · 즐기는 모두의 축제, 제40회 새얼백일장
- 38  4P 학습역량 기반 '2025 웅진여름학교'

학교돌보기

- 40 '인천형 1호 숲속학교'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학교
- 42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해양생태교육관 개관

공감

- 44 인천하늘중 - 인도네시아 SMP Al-Hamidiyah 국제교류 프로그램, '문화로 잇는 우정'
- 46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기

발행일 2025년 9월 19일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조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기획 및 편집 김기호, 이영호
사진 변상호, 이주한, 서주희, 이상훈
제호 서체작가 꽃비 고천성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소식지 문의 032-320-0082
홈페이지 www.ice.go.kr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5-0252
디자인 · 인쇄 삼정인쇄(T. 032-773-3402)





현장에 묻고, 현장에 답하다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 발표

이정도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주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은 학교 역할의 확대에 따라 늘어난 교직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을 2025. 7. 8.(화)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학교업무 경감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특·초·중·(특성화)고 학교급 및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 도서지역 학교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직면한 현안이 달랐습니다.

이에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은 “현장에 묻고, 현장에 답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별, 직종별로 소외됨 없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길을 찾다.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으로

교육청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학교현장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약 1만 4천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 110명의 학교현장지원 과제 발굴단, 200여 명이 참석한 학교현장

지원 방안 대토론회, 저경력 교사 및 교원 단체·교직원 노조와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현장 고충과 제안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영역이 없도록 교육청 관련 부서로 구성된 실행 TF와 교무·연구·학년부장 등 실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으로 꾸린 실무지원단을 운영하여 총 355건의 과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중복되거나 유사한 과제는 통합하고, 새로운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였습니다.

과제 발굴	지속적 과제 발굴 및 심의·검토	부서 검토 및 속의
과제 발굴단 운영 — 총 74 건 8개 분과, 교직원 총 110명	학교현장지원 전담기구 — 총 44 건 - 과제 발굴 및 검토·자문을 통한 최종 과제 선정 8개 분과, 교육공동체 대표 및 현장전문가 55명	부서별 실무 검토 교육청 전 부서 (기관)
설문조사 — 총 118 건 교직원·학생·보호자 14,765명 참여	정책실행 TF — 총 18 건 - 교육청 관련 부서와의 협력적 체계 구축을 통한 과제 발굴 및 제안 과제 정책 가능성 속의 부서별 17명	현장 공청회 - 최종 방안 의견 청취 및 보완·정리 교직원·학생·보호자 130명
대토론회 — 총 69 건 학교급 및 직종별 패널 구성, 교직원 210명	실무지원단 - 학교 현장 관점에서 경감 및 효율화 과제 자문 교감, 전문직, 교무·연구·학년부장 9명	
간담회 — 총 32 건 저경력 교사 150명, 교원단체 및 교직원 노조 총 13개 단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다양한 제안의 법적·제도적 타당성, 실행 가능성, 직종 간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교육청 전 부서가 함께 실행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학교현장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완·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전문기관으로 과감히 이관하는 학교 밖 이관, 둘째,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반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셋째, 학교급·학교특성·직종별 여건을 촘촘하게 반영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또한 지속추진과제 33선을 마련하여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법령 개정, 인력 충원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모두를 위한 학교현장지원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비본질적인 업무나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 업무를 교육청 또는

학교를 학교답게, 앞으로도 함께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

인천 학교현장 지원 방안

100선

즉시, 단기

학교 밖 이관 | **10선**

업무 경감 및 효율화 | **30선**

맞춤형 지원 | **60선**

미취(입)학 아동학생 관리, 기간제교원 호봉 확정, 생존수영교육,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버스 및 안전요원, 기록물 폐기 등

업무방식개선 | 학기초 업무 꾸러미 제공, 교직원 연수 방법 개선 등
일몰 | 재량휴업일 공문 생산 폐지, 신규사업 사전점검제 등

시스템 구축 | 중학교 배정결과 온라인 공개 시스템 도입 등

학교급별 (유·특·초·중(특성화)고), **학교특성별** (도서지역, 다문화 등),
영역별 (교육과정, 학교시설 및 환경, 여건 및 인식 개선 등) 지원 방안

지속추진과제

33선

중장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수 증원, 행정업무인력 확충 및 교무학사 지원시스템 개편, 공립 특수학교 및 유치원 통학버스 업무 이관·효율화,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일괄 조회 업무 개선,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급 업무 이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구매 관련 업무 효율화 지원 등

누구나 누리는! 모두가 만족하는! 다 같이 만들어가는! 인천형 늘봄학교

정고은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장학사

누구나 누리는 인천형 늘봄학교

인천형 늘봄학교는 원도심, 신도시, 도서·농촌지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등 다양한 교육 환경을 고려해 학교 맞춤형 늘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늘봄학교는 교육청과 협약한 대학·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서지역 늘봄학교는 희망교원이 운영하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서지역의 늘봄 수요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늘봄학교는 지역센터와 연계한 학교 밖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 늘봄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 모국어 안내자료 및 한글 해득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여 신도시 과대·과밀학교의 돌봄대기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근 3개 학교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고, 안전체험관·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또한 원도심 공동화 지역에는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교 안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열었습니다. 인근 10개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천형 늘봄학교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인천형 늘봄학교의 특색으로 이른 등교 학생에게 참찬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침이 신나는 교실’에서는 다양한 신체활동, 독서활동 등 아침형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침이 따스한 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전 틈새돌봄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아침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은 저학년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춘 놀이·체험 중심의 늘봄 프로그램입니다. 신체활동, 문화예술, 읽기쓰기, 심리정서, 독서활동, AI, 코딩, 드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과 정서, 사회성 등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형 늘봄학교는 안전한 돌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출결관리시스템을 의무 도입하고, 비상벨, 비디오폰, CCTV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인솔과 귀가를 지원하는 늘봄안심도우미를 전국 최대 규모로 배치하는 등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인천형 늘봄학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만들어가는 인천형 늘봄학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백없는 돌봄을 실현합니다. ‘초등돌봄포털’ 플랫폼을 통해 인천 지역 내 아동돌봄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동네 지역돌봄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형 늘봄학교는 학생에게는 즐거운 성장의 기회, 학부모에게는 든든한 안심,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협력을 만들어갑니다.



「나에게 ON 방학」 읽걸쓰로 켜 성장 스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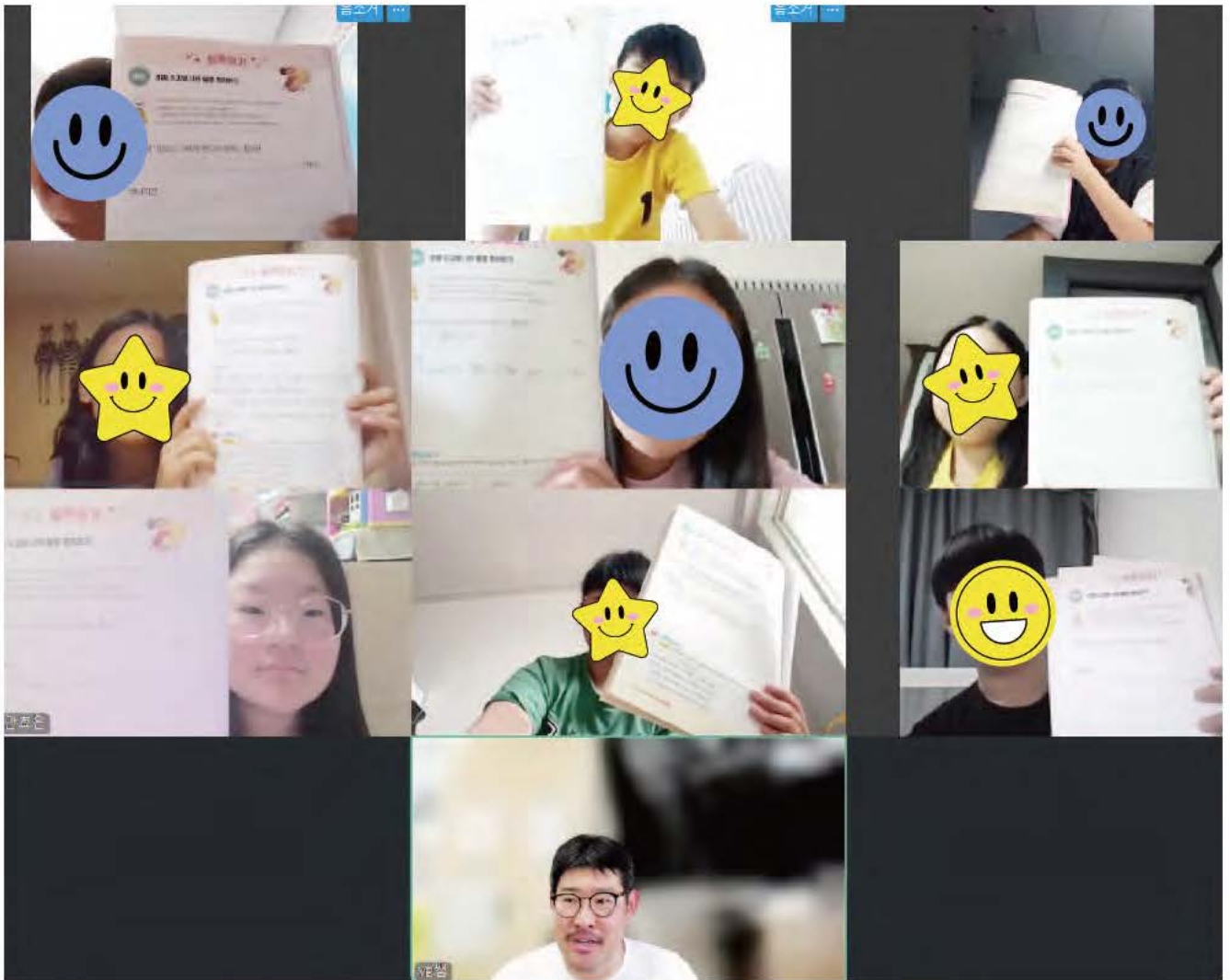


김양숙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읽고, 걷고, 쓰며 만난 「나에게 온(ON) 방학」

여름방학 중에도 매일의 작은 도전이 모여 아이들의 눈빛 속에 성장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여름방학 10일 동안의 온라인 학습캠프에서 아이들은 혼자서도 척척 과제를 해결했고 부모님은 자녀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나에게 온(ON) 방학」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어요?

인천장아초 4학년 이연지 학생

저는 상상력이 풍부해졌어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해 주말마다 엄마, 오빠와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이번 활동에서는 주제를 생각해서 적고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 많아서 글쓰기 실력이 늘었어요. 더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표현력도 많이 성장했어요.

「나에게 온(ON) 방학」 활동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인천봉화초 5학년 안효은 학생

친구들아, 나는 여름방학을 「나에게 온(ON) 방학」 활동을 하면서 보냈어.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어. 혼자서 미루지 않고 10일 동안 프로젝트를 해 낸 점이 정말 뿌듯해. 보람, 재미, 실력, 이 세 가지를 모두 잡는 「나에게 온(ON) 방학」, 우리 같이 하자!

자녀의 여름방학에서 「나에게 온(ON) 방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인천장아초 한재희 학부모

이번 방학 동안 아이가 참여한 「나에게 온(ON) 방학」 활동은 아이의 일상과 마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던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즐겁게 활동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힘을 길러주었어요. 단순히 공부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아이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나에게 온(ON) 방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인천봉화초 김아름 학부모

「나에게 온(ON) 방학」은 실생활에도 학교 교과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아이가 스스로 혼자 학습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활동이라 매일 재미있고 꾸준히 학습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학습 활동한 결과를 패들렛에 올리면 온라인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매일 따스한 응원이 담긴 정성스러운 댓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겨울 방학에도 또 내년에도 함께하고 싶은 너무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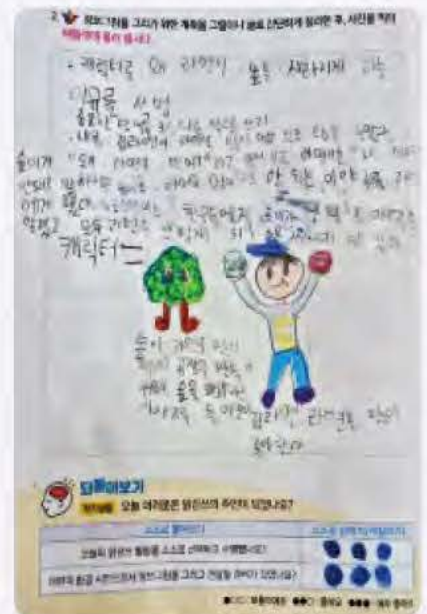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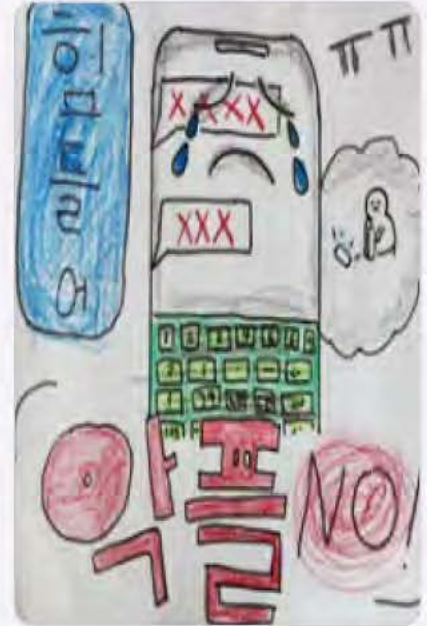


캠프를 숫자로 말하다

참여 규모: 3개 학년, 12개 온라인 학급, 총 240명
보호자 만족도: 100% “다음 기회에도 참여하고 싶다”
학생 만족도: 90% “나는 캠프 활동에 만족한다”
학습 만족도: 93%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겨울방학에도 켜지는 워킹쓰 성장 스위치

여름에 불이 켜진 성장의 경험, 겨울에도 계속됩니다. 학생들은 더 많은 체험·토론을 원했고, 보호자들은 내년에도 꼭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ON 방학’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밝히는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중등 쌤튜브와 함께하는 방학 5주 프로젝트

송숙영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방학 중 학습 공백? 이젠 그만!

현직 교사들이 만든
5주 완성 온라인 프로젝트 '중등 쌤튜브'

여름과 겨울방학은 학생들에게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지만, 학습 리듬이 쉽게 흐트러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5주간 운영되는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젝트 '중등 쌤튜브'다.



그림 어떻게 봐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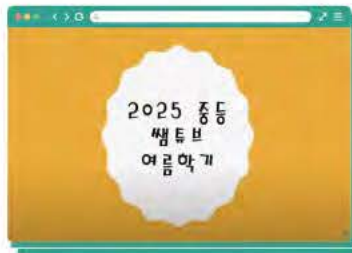
쌤튜브 미술 수업, 첫번째
김민영, 부일중학교 미술교사



안녕하세요 쌤튜브 미술 강



[2025 여름방학 쌤튜브]
(공통 음악-5주차)
시간을 듣는 플레이리스트(2)
게이름의 시조는 중세였다!



[2025 여름방학 쌤튜브]
(중등 사회-5주차)
Chat GPT 탐구하기



[2025 여름방학 쌤튜브]
(고등 수학-5주차)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까먹었니?
중학교 수학, 복습하자!



[2025 여름방학 쌤튜브]
(중등 국어-5주차)
vlog 읽고 견고 쓰니까
탐구보고서 완성 우리 학교
공간 이름의 비밀



개념부터 정서 회복까지

'중등 쌤튜브'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핵심 교과의 개념과 원리를 다져 학습 공백을 채우고, 음악·미술을 통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단순한 보충 학습을 넘어, 지적 호기심과 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만드는 맞춤형 수업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직접 기획·출연한다는 점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는 물론, 교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그대로 담겨 있다. 또한 2022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400편이 넘는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됐으며, 모든 영상은 인천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해마다 진화하는 '쌤튜브'

해마다 주제를 달리하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온 '중등 쌤튜브'의 발자취는 다음과 같다.

2022년 : 교과별 핵심 개념 소개

2023년 : 최신 이슈와 교과 연계 도서 소개

2024년 : 질문과 사고력을 키우는 심화 학습 콘텐츠

2025년 : '읽건쓰' 기반 글쓰기(탐구), 마음건강 프로그램

2025년, '읽건쓰'로 생각의 힘을 키우다

올해의 키워드는 '읽고, 건고, 쓰는' 활동이다.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제작된 영상 주제 중 일부를 소개한다.

- 국어 교과에서는 '이제는 미룰 수 없다, 자기소개서 작성 1, 2', '유튜브 리뷰도 탐구보고서가 될 수 있다고?', '출처 안 쓰면 0점? 쓰기 윤리 완전 정복!', '우리 학교 급식표를 읽건쓰 해 봤더니...' 등 일상 속 친근한 주제로 글쓰기의 문턱을 낮추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 '읽고 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수학 교과에서는 '수리 논술의 이해(약술형/일반 수리 논술)', '합격에 다가가는 수리 논술 서술 방법', '점수를 올리는 논술 TIP', '약술형/일반 수리 논술 기본 전략' 등과 같은 주제로 자신의 풀이 과정을 글로 표현하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 예·체능 교과에서는 '우리가 듣는 플레이리스트 : 대중음악사 블루스와 재즈의 이해 / 대중음악사 록과 흑인 음악의 이해', '시간을 듣는 플레이리스트', '반 고호가 전해주는 꽃 같은 인생 1, 2', '못 그리지만 잘 그리는 척(ssap) 가능' 등 호기심을 자극하고 교양을 쌓는 주제로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언제든, 어디서든

지난 4년간 제작된 모든 '쌤튜브' 영상은 인천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 방학 5주 여정이 학생들에게 학습 자신감과 지적 활력을 심어줄 것이다.

다가오는 겨울방학도 '중등 쌤튜브'와 함께라면 학습 공백은 줄이고, 성장의 속도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읽건쓰와 함께 걷는 수업산책 속으로 인천 초등 수업산책 2025 이야기

박상영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커피 향기와 잔잔한 음악이 선생님들을 맞이합니다. 교실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선생님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서로의 수업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로 「인천 초등 수업산책 2025」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수업의 길, 함께 찾는 여정

요즘 교실에는 다양한 흐름이 공존합니다. 읽건쓰 연계 수업, AI·디지털 기반 수업,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깊이 있는 학습까지... 교육의 방향은 풍성하지만, 교사들에게는 그만큼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수업 혁신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초등 수업산책 2025」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힘겹고 풀리지 않는 수업 고민들을 꺼내놓고, 선후배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길을 찾아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작은 깨달음이 모여, 다시 교실로 돌아갈 용기를 만들어 줍니다.



인천만의 수업 혁신 문화

「초등 수업산책 2025」는 단순한 수업 나눔이 아니라, 인천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업 혁신의 장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읽건쓰 연계 교육, 인천형 AI·디지털 교육 정책, 그리고 러닝 퍼실리테이션(Learning Facilitation)이 만나는 자리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편안한 카페에서의 대화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정책을 생활 속 언어로 풀어내며 인천만의 수업 혁신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됩니다. 교사의 목소리가 모여 정책이 살아 숨 쉬고, 작은 공감기가 모여 교실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 교사의 목소리가 모여 정책이 살아 숨 쉬고,
작은 공감의 모여 교실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



함께 걷는 수업산책

「초등 수업산책 2025」는 교직 여정을 네 가지 길로 풀어냅니다.
1회차 오솔길에서는 신규·저경력 교사가 수업의 첫걸음을 내딛고,
2회차 올레길에서는 복직 교사가 다시 수업과 친해지며,
3회차 둘레길에서는 신규 부장교사가 수업 리더십을 다지고,
4회차 오름길에서는 모든 교사가 새로운 수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합니다.
길의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길은 교사의 자존감 회복과 수업 자신감 강화라는
같은 목적지로 향합니다.

교사가 웃어야 학생들이 웃는다

1회차 오솔길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저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교실로 돌아가 힘을 낼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이 작은 고백이 보여 주듯, 수업산책은 교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는 안전망입니다. 교사가 웃어야 학생도 웃습니다.
「초등 수업산책 2025」는 그 믿음을 품고, 오늘도 인천의 교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길, 우리 인천의 수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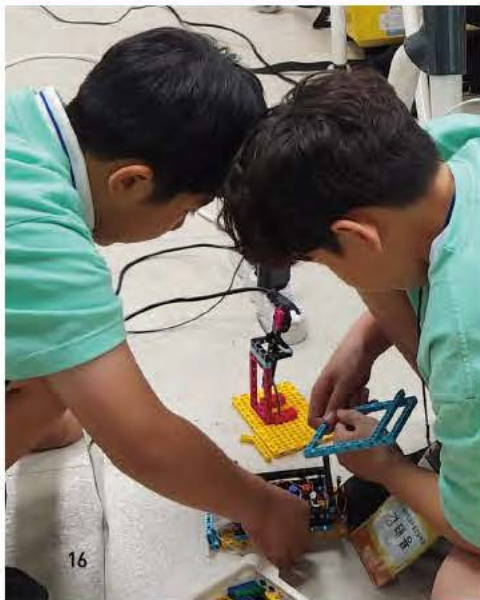
「초등 수업산책 2025」는 교사들의 작은 발걸음을 모아 인천 수업 문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고민이 공감으로,
공감이 성찰로, 성찰이 다시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이 우리 교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천 초등 교사의 함께 걷는
수업산책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마음’을 읽고, ‘코딩’으로, ‘함께’의 가치 성장
생각에 AI를 더하는
2025년 학생SW캠프·AI해커톤 챌린지

김귀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융합인재교육과 장학사



7월 22일~23일, 인천가톨릭대학교에 '코딩'이라는 관심 분야가 같은 학생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였다. 주어진 문제를 친구와 함께 고민하고,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탐색했다. 함께 찾는 자료를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이 읽어야 하고, 상호 의견을 존중하며 비교, 분석, 판단해야 하며, 나아가 그들만의 프로젝트를 위해 아이디어가 더해져 프로그래밍으로 구현되어야 프로젝트는 완성된다.



초등 5~6학년	팀수 : 30 / 인원 : 60명 SW교구 : 마이크로비트
중학생	팀수 : 30 / 인원 : 60명 SW교구 : 마이크로비트, 하스키렌즈, 음성인식모듈
고등학생	팀수 : 30 / 인원 : 60명 SW교구 : python, 생성형AI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90팀(180명)을 추천·선발하여 팀프로젝트 활동으로 인천 학생SW캠프를 운영했다.

게임의 세계, 알고리즘으로 끝없이 유혹하는 영상의 클릭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제로 친구와 대화하고, 몰입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은 매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풀어내는 과정은 대상과 목표를 정해야했고, 역지사지 속에서 대상자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상황을 고려해야하며, 그들에게 도움이나 개선이 되는 '가치'중심의 프로젝트로 완성해야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들의 1일차 학습은 컴퓨터 비전이었고, 핵심주제 '소통'을 있는 그대로, '대화'에 초점을 둔 개인의 감정 인식, 수어중심의 프로젝트가 많았다. 우리 교육청은 '읽씹쓰'라는 행동주의적 교육방법 안에 AI시대, 깊이 있는 교육철학을

학생SW캠프 활동 내용 사례		
학교명	팀명	주요내용
인천 봉수초	우리가 이겨줄게	마이크로비트 LED의 기능과 초음파센서를 활용하여 '할아버지 지키기' 프로젝트를 통해 시니어의 삶을 살 펴보고, 할아버지가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
구월 여중	슈테른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감정을 잘 표현하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발표하며, 마이크로비트의 음성인식 센서와 LED, OLED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이 하는 말을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그 말이 긍정적인지 부정 적인지에 따라 긍정 지수, 부정 지수를 측정하는 프로 토타입을 발표했다. 그 지수에 따라 LED 전구의 밝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발달장애인의 기분을 인지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감정 번역 목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프로젝트 과정에서 LED 전구 가 켜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실패를 감정으로 돌리기보다는 더 많은 학습적 호기심으로 발 표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주도성이 도전과 실패속에서 더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실증
결마루 미래 학교	태태	'수어 번역기'(생성형 AI와 핸드드래킹, 페이스매시, 포즈 트래킹, 파이오토GUI의 기능과 활용으로 수어를 텍스트 로 번역해주는 앱 발표

담고 있다. 생성형AI가 발전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더 많이 읽어야 한다. 인문학의 진심과 기본기를 쌓고, 생성형AI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자료를 읽어야만 한다. 그래서, 더 잘 읽어야 한다. 근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 운동을 융합할 수 있는 것처럼, 인문학적·기초자연과학적 소양의 기초가 탄탄한 상태에서 AI가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걷는' 행위는 글속에서, 온라인 정보, 영상 속에 갇힌 간접경험치가 아닌, 'SW캠프', '해커톤'과 같은 도전과 참여 속에서 학생들은 깊이 있는 학습과 가치 있는 경험치를 높이며 '함께'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AI가 우리생활에 밀접해졌지만, AI활용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쓰기'를 도서와 텍스트에 국한하지 말고, 이제는 영상으로, 콘텐츠로, 자신이 만들어내는 혹은 발견한 데이터가, 우수한 글로벌 대학의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대이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출현되어, 인천의 결대로 성장으로 만들어낸 K-AI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가는 길 마을에서, 마을과 함께 완성하는 학교예술교육

박현아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대청중학교와 친해지니 정말 좋았다. 그리울 것 같다.

나는 1반이어서 2반과 수업을 함께 할 일이 없었는데 예술 덕분에 2반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 국악을 이렇게 자세히 배울일도 많이 없어서 뜻깊었다. 친구들과 목소리를 맞춰가는 과정이 엄청 재밌었다.

백령도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내용인데 배워 보니 너무 소중한 추억이 생겼다. 3년 동안하니 실력이 늘은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무대가 걱정되었지만 실제로 무대를 해보니 너무 재밌고 뿌듯했다.

노래가 그냥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함께 느끼고 소통하는 것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학생 소감문 중에서-



섬마을에 울려 퍼진 예술의 울림

7월 10일 저녁, 백령다목적실내체육관에는 7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주민, 관광객이 모였다. 풍물패의 신명 나는 장단이 공연의 문을 열자, 아이들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백령초와 북포초 학생들이 함께한 바이올린 앙상블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이어 전국 팔도의 민요가

합창으로 이어졌다. 노랫소리와 북소리에 맞춰 관객들은 손뼉을 치고 흥얼거리며 무대와 하나 되었다.

섬마을의 한 주민은 “아이들 공연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큰 잔치 같다”며 활짝 웃었다. 공연은 단순한 학생 발표회를 넘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섬마을 축제가 되었다.





백령에서 대청까지, 교육의 확장

백령·대청 특화 예술교육은 2023년 백령도의 세 학교(백령초, 북포초, 백령중고)에서 시작되었다. 심청가 전설을 품은 백령도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판소리 심청가를 기초로 한 국악합창 교육과정과 연계 발표회를 운영했다.

2024년에는 대청초등학교가 합류했고, 올해는 대청중·고등학교까지 참여하면서 백령·대청 5개교 전체가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모델로 확장되었다. 이는 물리적 거리의 어려움을 지닌 도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섬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공동체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자치동아리와 함께하는 무대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자치동아리의 참여였다. 백령면 자치동아리 중 풍물동아리와 합창 동아리가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였다. 풍물패의 북장단이 길을 열고, 주민 합창단의 목소리가 아이들의 합창과 어우러지는 순간, 객석에서는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

백령면 자치동아리의 한 단원은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서니, 마을의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며 감격을 전했다.

이처럼 마을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예술은 아이들만의 배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1인 1악기’, 생활 속 예술교육

올해는 1인 1악기 교육이 도입되면서 무대가 더욱 풍성해졌다. 백령초와 북포초 모든 학생에게 1인 1악기 교육의 일환으로 바이올린 교육이 월1회 더해졌고, 그 중 10여명이 함께 아리랑 바이올린 앙상블을 선보였다. 무대에 선 한 학생은 “악기를 배우면서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는 게 즐거웠다.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합창 무대에 악기의 선율이 더해지자 공연은 한층 다채로워졌다. 더불어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예술교육을 넘어, 예술이 아이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확장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아이들, 무대에서 성장하다

무대 위 아이들은 떨림 속에서 노래하고 연주했지만, 공연을 마친 뒤에는 한층 성장한 모습이었다. 부모님은 아이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고, 마을 어르신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무대에서 당당하게 노래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마을이 함께 키워낸 결실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신감을 얻는 과정이었다. 교육과정에서 배운 노래와 악기가 무대 위에서 하나로 모이며, 아이들은 ‘예술이 주는 성취감’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앞으로의 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예술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걸어갈 때 진짜 교육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섬마을의 예술교육

생태계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교육이 예술로, 예술이 문화로, 문화가 공동체로 이어지는 새로운 예술교육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는 도서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에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마을과 함께 여는 내일

백령과 대청의 특화 예술교육은 이제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드는 예술공동체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아이들의 공연이 마을의 축제가 되고, 마을의 재능이 다시 아이들의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백령·대청 특화 예술교육을 비롯해 강화·동요·가곡 교육, 인천형국악프로젝트 등 지역 기반 학교예술교육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마을을 이해하고,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는 아이들. 그들이 바로 인천의 내일을 여는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웃음으로 물들여진 ‘2025 세계 식생활 문화 체험 한마당’ 그 성공적인 여정!

배윤주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장학사

2025년 7월 5일, 뜨거운 여름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던 인천송도컨벤시아, 그곳에서 펼쳐졌던 「2025 세계 식생활 문화 체험 한마당」이 교육 가족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이한 '세계 식생활 문화 체험 한마당'은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키우며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2025 세계 식생활 문화 체험 한마당」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온 교육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행사의 문을 활짝 연 것은 대중예술고등학교와 인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화려한 축하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의 열기 속에서,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교육감배 학생 요리경연대회'가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계 요리를 직접 만들고 맛보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고, 바르고 건

강한 식습관을 배우는 영양스쿨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어린 꿈나무들을 위한 '꼬마 셰프의 이야기 쿡' 코너는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마당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던 '별별 영양 게임존'과 k-급식의 위상을 드러내는 '학교급식 우수식단 전시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이번 「세계 식생활 문화 체험 한마당」의 백미(白眉)는 단연 '제6회 교육감배 학생 요리 경연대회'였습니다. 경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못지않은 뛰어난 요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심사위원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토록 뜨거웠던 경연 끝에, 초등 부문에서는 만수북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MSG김밥열풍'팀이, 중등 부문에서는 송덕여자중학교의 '개미원정대'팀이 각각 영예로운 '세계로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번 「세계 식생활 문화 체험 한마당」에 참여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나들이를 나온 기

분이었어요. 프로그램 하나하나 모두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라며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체험 활동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밝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내년에도 꼭 한마당에 참여할 거예요!”라고 외치며 해맑게 새끼손가락을 높이 들어 보이기도 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저도 다음번에는 꼭 학생 요리경연대회에 도전해 볼래요!”라며 야무진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다짐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식생활 문화 체험 한마당’ 현장을 직접 둘러본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모든 영양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즐거움 체험 속에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라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우리 인천 학생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행사의 교육적 가치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제15차 람사르습지협약 총회와 생태전환 교육

김순래 |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 COP15 대표단 습지전문위원

습지는 물 여과와 저장, 홍수 조절, 탄소 저장, 식량, 여가 활동과 관광자원 그리고 많은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습지 협약 보고서에서는 “1970년 이후 전 세계 습지의 22%가 사라졌으며 현재에도 습지는 다른 생태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전 세계 습지의 20%가 더 사라질 수 있으며 습지의 손실은 생물 다양성 감소, 기후 변화 완화 능력 저하 등으로 심각한 생태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람사르습지 협약은 1980년 11월 칼리아리(이탈리아) 1차 당사국 총회(람사르 COP1)를 시작으로 매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025년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짐바브웨 빅토리아폴에서 열렸다.

람사르습지 협약은 보통 Ramsar 협약이라고 부르며 1971년 2월 2일, 이란 Ramsar에서 정식 채택되고 197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1997년 UN은 습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고 2008년 11월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도 이를 계기로 습지 보전 정책과 습지 교육의 선두 지자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새의 서식지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강조했던 이 협약은 이후 생물다양성 보존과 기후변화 완화, 인간 복지 등에 기여하는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습지협약'으로 변경하였다. 습지협약은 지구 자연생태계에서 습지의 기능과 가치에 대하여 폭넓게 해석하고 지구 환경 보전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습지협약은 총회 때마다 결의안을 채택하여 회원국에게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COP1부터 COP15까지 채택된 결의안 중 청소년과 인식증진 교육에 관련된 결의안은 스위스 몽트뢰의 「교육 및 훈련」이 최초이다. 이는 '습지 연구와 관리에서 유능한 인력 양성, 대상은 청소년과 공식·비공식 학교 학생, 기존 교육 시설 최대한 사용, 교육을 위한 특별 준비금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COP6의 「교육 및 대중 인식」 결의안은 CEPA 프로그램을 필수 도구라고 규정하였다.

스페인 발렌시아 COP8에서 '습지가 정규 교육 과정의 일부'라고 보고 한 「CEPA에 관한 협약 프로그램」, 제네바와 우한 COP14에서 「새로운 CEPA 접근 방식」, 「공교육 부문의 습지 교육」, 「청소년을 통한 람사르 연결 강화」 그리고 짐바브웨 빅토리아 COP15에서는 「청소년 권한 부여 및 통합에 관한 결의안: 습지 협약에 대한 참여와 지속성 증진」이 채택되었다. 습지에 대한 청소년 교육의 위상은 협약 초기에는 청소년을 CEPA 대상의 일부로 분류하였다. 이후 일부 국가에서 습지를 주제로 정규 교육 과정 시행 등 청소년과 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결국 COP14의 '공교육에서의 습지 교육'과 '청소년을 통한 람사르 인맥 강화' 그리고 COP15에서 '청소년 권한 부여 및 통합' 등 결의안은 습지 보전과 복원에서 청소년과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식의 단계를 넘어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COP15에서는 COP14에서 결의한 「공교육에서의 습지 교육」을 이행하는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실천하는 습지 교육」을 주제로 Side Event가 진행되었다. Kings Primary School 학생들의 '습지와 우리의 미래'와 '물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발표에 이어 '람사르습지 결의안「XIV.11을 이행하는 한국습지학교 네트워크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인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의 발표가 있었다. 도성훈 교육감은 발표에서 '인천, 경남, 전남, 제주 4개의 교육청이 참여하는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결성과 향후 계획',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아시아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 준비' 등 전반적인 활동 결과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우수 사례를 소개하였다.

문명이란 인류가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서 물질·기술·사회 구조 발전으로 인간이 자신의 생활을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 과거의 문명은 기후나 지형 같은 환경적 영향으로 이집트 문명 등 지역에 국한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 확립과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의 산업 문명이 사회를 주도하게 되었다. 산업 문명은 대량 생산과 소비로 인한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 습지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기후 변화 등 생태환경 부분에 부정적인 문제를 불러왔다. 이는 인류세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습지 파괴, 생물 멸종, 사막 면적 증가로 가뭄, 태풍, 산불, 폭우, 폭염 또한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1780년대 산업혁명으로부터 불과 200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 문명에서 시작된 환경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 모색의 방법으로 생태문명이 등장하였다. 생태문명은 산업문명이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이며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환경 오염, 팬데믹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인류 생존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생태전환교육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을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으로, 단순한 환경 교육이 아닌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 및 사회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에 습지 교육을 통합하고 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지원', '습지 교육 교사 역량 강화 지원', '지역 사회의 전통 지식을 포함한 시민 과학 활동 지원 및 협력', '양질의 교육 자료 제작 및 활용', '지역 활동가, NGO, 전문가를 포함하는 평가 지표 작성 및 교육 결과 확인 그리고 피드백', '정식 교육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청소년 참여는 '공동의 미래를 위한 습지 보호'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청소년 참여를 주류화하는 작업', '청소년 참여를 위한 모범 사례 지지와 홍보', '청소년의 국가 및 국제 수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권한 부여', '청소년 워킹그룹 설립' 등 생태문명으로 전환에 청소년과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짐바브웨 람사르 COP15의 결의안에 주목하고, 정책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알면 보물! 우리의 미래교육을 보고 싶으면 강화를 가라

배경환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장학사



강화가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읽견쓰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강화를 가라’,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보고 싶으면 강화를 가라’고 말합니다. 강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평화와 생명, 생태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수많은 문화유산과 전통이 살아있어 일상이 배움이 되는 삶의 터전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강화군청과 함께 강화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강화가 가진 강점을 살리고, 극복해야 할 과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강화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마을과 학교가 함께 강화에 최적화된 미래교육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갖추는 배움의 토대위에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나를 아끼듯 남을 아끼는 사람을

15×3=읽건쓰 루틴 챌린지란?

〈15×3=읽건쓰 루틴 챌린지〉는 생활 속에서 읽건쓰 루틴을 실천하고 기록함으로써 읽건쓰 습관 형성을 돕는 자료임. 〈15×3〉은 하루 15분 읽기(세상 읽기, 자기 이해), 15분 걷기(사유와 성찰, 몸·마음 건강), 15분 쓰기(실천적 글쓰기, 공감과 연대)를 의미함.



키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미래교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건쓰 기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은 미래교육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건쓰는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 철학이자 방법이며 내용이 되는 미래교육의 기반입니다. 강화의 학생들은 지금도 읽고, 걷고, 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며, 마을과 지역을 한 걸음씩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의 특별한 교육, 읽건쓰 루틴 챌린지!

하루 45분, 삶의 힘을 키우는 〈15×3=읽건쓰 루틴 챌린지〉! 조산초등학교(강화군 양도면 소재) 학생들의 루틴 읽건쓰 챌린지 활동을 통해 강화가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른 아침 총 11명인 조산초 4학년 학생들이 친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희(조산초 4학년)는 “걸으면 발바닥에 좋은 느낌이 달고 숲 냄새도 맡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합니다. 리원(조산초 4학년)이는 “읽건쓰 루틴 챌린지 덕분에 더욱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즐겁게 자신의 느낌을 말합니다. 담임교사인 심윤희 선생님은 “아침 시간 아이들은 걸으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자연에서 발견하는 것도 많고, 15분 걷기로 아이들은 많은 경험을 얻는다”며 “아침에 이렇게 걷고 들어가니까 1교시 시작할 때 훨씬 활력이 넘치고 아이들의 긍정적인 반응 때문에 더 일찍 프로그램을 시작해볼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15분 걷기가 끝나면 이제 15분 동안 읽기 차례입니다. 스스로 고른 책 속으로 빠져드는 아이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아이들의 세계도, 삶의 깊이도 깊어만 갑니다. 세 번째 시간은 자신의 감정을 쓰고 세상을 표현하는 쓰기 15분입니다. 산책했을 때 느꼈던 것도 책을 읽고 발견한 것도 전부 표현합니다. 채원(조산초 4학년)이는 “오늘 아침 비가 오고 나서 잠깐 산책을 했다. 나뭇잎에 맺힌 걸 보니 기분이 상쾌했다. 또 아침마다 매일 걸으니 더 건강해진 느낌이다”라며 “친구들과 함께 걸으니 행복했고 왠지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걸어서 행복한 아이들, 스스로 과제를 완료하고 자신에게 상으로 붙이는 스티커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일 것입니다.

<강화에듀페어 락(樂)더강화> 작은 학교 큰 배움, 강화의 특색 교육 모두 모여라!

생태와 교육이 어우러진 미래의 섬 강화로 어서오시거! 유구한 역사와 자연이 살아숨쉬는 강화에서 일상이 배움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2025 강화에듀페어 ‘락(樂)더강화’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저마다의 빛깔로 성장하는 미래교육의 보고(寶庫)인 강화에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강화는 100년 역사를 가진 학교가 8교나 있는 교육 역사를 품은 지역입니다. 현재 강화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강화만의 문제가 아닌 인천의 문제, 전국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장서 도전하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역사와 생태 그리고 교육이 어우러진 미래의 섬 강화에서 항공우주, AI, 스포츠, 영어교육 등 4개 클러스터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결이음교육과정을 통해 작은학교들을 연결하는 강화 특화 교육 및 지자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또한, 강화만의 특색을 살려 읽기, 걷기,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을 배우고, 몸으로 느끼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화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곳,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사람, 애기애타(愛己愛他)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강화의 이러한 혁신교육모델은 앞으로 인천교육의 모델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 롤모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강화는 자신에게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지역과 함께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인간성을 갖춘 문제해결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교육이 바로 강화교육입니다.



섬선옥수! 섬마을 선생님 어울림 한마당

섬 지역은 학교도 학생도 많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선생님의 수도 많지 않습니다. 고립감을 해소하고 함께 연대하고 협업해서 교사들의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축되면 선생님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를 위해 기획된 <2025 섬선옥수 섬마을 선생님 어울림 한마당>,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읽건쓰 챌린지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섬선옥수 섬마을 선생님 어울림 한마당>은 섬마을 선생님들의 생명력 강한 옥수수의 한 알 한 알을 심고 정성으로 키우는 것처럼 섬마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심에 대한 감사와 응원을 담은 축제입니다. 이번 섬마을 선생님 어울림 한마당 사전 행사였던 읽건쓰 루틴 챌린지를 통해 선생님들이 한달 동안 조금의 시간과 여백을 가지고, 복합문화공간 화안에서의 '치유와 섬의 아트 테라피', '음악과 해설이 있는 문화 산책', 지역 책방인 서담재에서의 '읽고 그리는 우리 꽃 그림 체험', 한중문화관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차이나는 여행 체험'을 통해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한 학기 동안 소진한 교육력을 회복합니다. 또한 관객과 대화하며 즉석에서 연극으로 스토리를 재현해 내는 교사를 위한 연극 공연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이 서로의 학교 이야기를 공유하며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과의 추억이 담긴 예쁜 사진과 학생들과 함께 읽건쓰 챌린지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심윤희 선생님(조산초)은 "교직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 건가 싶었던 어느 한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끌어 줬던 강화 선생님들, 그게 강화만의 특색이 아닌가 싶습니다"며 소회를 밝힙니다.



미래 교육? 지금 그리고 여기 강화에서 시작합니다!

교육청과 강화군청은 강화 지역의 아이들이 결대로 성장하도록 돕고,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강화로 만들기 위해 2024년부터 2년간 미래, 혁신, 안심의 가치를 지향하며 강화 미래교육의 기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강화가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은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 전체의 희망입니다. 학생들이 결대로 자라나고, 작은 학교가 저마다의 교육과정으로 생기를 품으면서, 읽건쓰 기반의 AI 융합교육으로 글로벌 인재가 성장하는 강화는 미래교육의 중심지이자 혁신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꿈을 읽고, 미래를 걷고, 희망을 쓰는' 강화 미래교육, 그 특별한 배움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강화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알고 싶어요!



통합지원 플랫폼 >

강화 학교가
궁금해요!



강화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강화군청 지원이
궁금해요!



강화군청 홈페이지 >





새 이름, 새 공간, 새 미래 **북구도서관** **‘신트리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나다!

한승화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팀장

1991년 9월 26일, 책으로 하나 되었던 북구도서관.

하지만 1995년 3월 1일 ‘북구’가 ‘부평구’로 분구(分區)되면서 ‘북구’라는 공식 지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도서관 명칭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져, 2001년부터 명칭 변경을 무려 4차례나 시도 했으나 명칭의 대표성과 공감대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2025년 1월,

북구도서관의 기본 방향인 「책으로 하나 되는 인천교육」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이고 참신한 이름을 공모하였다.

그 결과 학생 성공 시대를 이끌어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1,667건의 공모작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 속에 마감되었다. 명칭 변경을 위한 다섯 번째 시도로 북구도서관 직원들의 열기 또한 뜨거웠다.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설렘과 자긍심으로 내부 심사위원 11명이 밤늦게 까지 고민에 열정을 더했고 외부 ‘명칭 선정위원회’위원들도 5차례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선정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역성·역사성·미래가치를 담은 ‘신트리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도서관 옆에 신트리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쉽게 기억되는 이름이고, 한학자 백낙환이 신터리(新垞里, 新基里)라 하였다가 현재 신트리로 변하였다. 또한 가장 많은 신청자(68명)가 응모한 명칭이기도 하다.

‘新-Tree’는 ‘새로운 신’자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Tree’는 미래를 향해 자라나는 나무로 ‘새롭게 미래를 향해 자라나는 나무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3월 17일에는 ‘명칭 변경 공모 시상식’을 개최하여 선정된 14명의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2025. 8. 1. 조례 시행으로 신트리도서관의 힘찬 날개짓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명칭 탄생과 함께 이용자 친화적인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신트리도서관은 이제 시민 속으로 스며들려 한다.

읽고 쓰고 즐기는 모두의 축제 제40회 새얼백일장

함재희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교사

함께 쓰고 나누는 문학 축제

지난 9월 6일 토요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제40회 새얼백일장이 열렸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새얼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글쓰기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1986년 첫 회를 시작으로 이어온 새얼백일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순수 문예백일장이다.

이번 제40회 대회는 7,0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하고 5,3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는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새얼백일장은 축제
놀 사람은 놀고,
읽을 사람은 읽고,
쓸 사람은 써라!
그리고 즐겨라!

새얼문화재단

한은은행

신안은행

THE SHARP

포스코아연씨

INCHEON UNITED F.C.

STARTUP PARK

ifcz

인천경제

인천국제

인천국제

인천국제

인천국제

인천국제

인천국제

인천국제

인천국제



제40회 새얼백일장 글쓰기 제목

- ▶ 초등 1~2학년부 -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똥', '필통의 비밀'
- ▶ 초등 3~4학년부 - '반창고', '소곤소곤', '좋아요',
- ▶ 초등 5~6학년부 - '몰래', '검색', '다정한 말'
- ▶ 중학교부 - '너와 나', '키링', '색안경'
- ▶ 고등학교부 - '틈', '슬픔의 다른 말', '밤 풍경'
- ▶ 일반부 - '지난 여름', '무서운 일', '당신의 요리'

온 가족이 즐긴 체험 부스

행사장 북문 광장에서는 글쓰기뿐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놀이 체험, 읽걸쓰 체험, 우리말 체험, 캘리그라피와 업사이클링 체험 등 총 10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참가자와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려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었다.



시와 산문으로 피어난 상상력

개회식에서는 내가초등학교 전교생이 애국가를 힘차게 제창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참가자들은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 주제로 시(詩) 또는 산문(散文)을 선택해 글을 썼다.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생,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있는 글을 완성하며 상상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펼쳤다. 특히 남인천중고등학교의 만학도 1천여 명이 함께 참여해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글로 피어난 열정, 책으로 이어지다

이번 대회 심사는 지역 문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와 평론가들이 맡아 공정하고 세심하게 진행된다. 수상작은 장원·차상·차하·참방·장려상으로 나눠 시상하며, 단행본 『새얼문예40』으로 묶여 발간된다. 『새얼문예40』은 각급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배포되어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읽고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가는 소중한 자료가 될 예정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백일장

올해는 학교 단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학교 시상이 확대됐다. 입상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높은 참여율을 보인 학교에는 교육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영종·강화 등 원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이동 차량을 지원하는 등 교육청의 세심한 배려도 있었다. 아울러 인천조보문전자연합회의 주변 교통 정리, 인천주니어클럽의 안내 봉사, 학부모놀이지원단의 놀이 체험 진행, 인천의료원의 구급차와 간호사 지원 및 보건선생님들의 의료봉사까지 더해져 더욱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백일장이 되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축제의 장

40년 역사를 이어온 새얼백일장은 단순한 글쓰기 대회를 넘어,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서로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자리로 성장해 왔다. 글을 쓰는 경험이 곧 삶의 배움으로 이어지고, 일상의 순간이 곧 교육의 장이 되는 '읽견쓰'의 울림은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며, 행동해요!



4P 학습역량 기반 '2025 웅진여름학교'

오정은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섬에서 만나는 특별한 배움,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의 시간을 갖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웅진군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5 웅진여름학교」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인천 하버파크호텔과 제물포시융합교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웅진군 소재 5개 고등학교(대청고, 덕적고, 백령고, 인천영흥고, 연평고)의 1학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타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읽건쓰 4P 학습역량(관찰, 질문, 탐구, 행동)을 기르는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진짜 배움

여름학교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토론하고 생각한 내용을 발표하는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만든 창업 계획서를 설명한 경험이 앞으로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게 해줄 것 같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여 교사들 역시 “학생들이 평소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임했으며 도서 지역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웅진여름학교는 단순한 캠프를 넘어 도서 지역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키우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공교육의 역할을 실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읽건쓰 4P 학습역량, 여름학교에 스며들다!

2025 웅진여름학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중점 추진 중인 읽건쓰 4P 학습역량(관찰 → 질문 → 탐구 → 행동)을 중심으로 두고 구성되었습니다.

관찰 : 오리엔테이션과 사전활동을 통해 사회 현상과 세계시민 주제에 대한 인식 넓히기

질문 : 왜? 어떻게?를 중심으로 친구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토의하기

탐구 : 청년 CEO와의 대화, 진로 체험, AI·디지털 융합 활동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의미 만들기

행동 :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모의 창업을 기획하며 직접 투자하는 활동을 통해 '나'를 실행으로 확장하기

학생들은 활동 전반을 통해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고, 나와 세계를 연결짓는 학습을 경험했습니다.







인천형 1호 숲속학교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학교

김홍성 | 전, 인천주원초등학교 교장(현, 인천논곡초등학교 교장)



숲속학교 조성을 위한 과정을 담은
영상 보러 가기

학교숲을 조성하기에 앞서 고민한 것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는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늘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숲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주원 배움 공동체는 학교숲 조성에 앞서 30년 후의 학교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운동장 배수로 공사를 하기 전 등갯길과 놀이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곡선형 배수로와 구령대 주변 공간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덕분에 2023년에 '신나는 등갯길'을 만들 수 있었고, 내년에는 기존 구령대를 활용한 놀이터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학교숲 조성 과정

기존의 본관 앞 중앙정원은 바라보면 예쁜 공간이지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기에 이곳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고자 2022학년도 학교숲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워크숍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3차례의 워크숍과 중간, 최종 보고회를 거쳐 11월 말 학교숲을 조성할 수 있었고 명칭도 학생의 공모를 거쳐 꿈트리로 명명했습니다. 이어 2023학년도에 학교 정문에서 학교숲으로 이어지는 학교숲 2호

구불구불 '신나는 등갯길'을 조성하면서 학교숲을 가진
 주원초의 더욱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은 기회를 만든다.

학교숲의 기본 모습은 갖추었으나 본관 앞 유치원
 놀이터와는 달리 멀리 정문 옆에 위치한 초등학교 놀이터가
 늘 속제로 남아있었던 차에, 2024학년도 인천시교육청
 공모사업인 '숲속 학교 조성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주원 배움 공동체는
 학교숲 1호와 2호에 더하여 숲속 학교를 그려보며 주제가
 있는 공간설계를 통해 이야기와 배움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속에서, 학교숲 1, 2호와 어우러진
 새로운 복합놀이공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숲속 학교이어야 하는가?

30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 20~30년후에도 운동장의
 모습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학교 안에 숲을
 조성한다고 그곳이 영원히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학교숲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학교 구성원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이지만 학교숲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가야 할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이뤄질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원초 숲속 학교는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운동·학습이
 융복합된 다양하고 유연한 생태환경 속에서 생태체험과
 실천이 가능하며 나아가 학생들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구 생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생태계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인천주원초는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모습의 학교 운동장 공간 혁신으로, 인천형 숲속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 생활하며 친구들과
 서로 즐겁게 어울려 놀고, 배우며, 쉴 수 있는 특별한
 숲속학교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천주원초등학교의
 변화할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매일 배우고 문제 풀이만 하는 삶이 아니라, 밝고 편안하며
 안전한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땀 흘려 노는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편안한 관계 맺기'를 통해 배운 모든 것이
 학생들의 삶의 힘이 됩니다. 친구, 가족, 주민들과 함께 꽃, 풀,
 나무와 어우러진 쉼과 놀이의 공간, 다양한 색과 모양, 생명이
 살아있는 숲속 학교의 삶 속에서 스스로 가꾸는 배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힘(역량)으로 자리 잡고, 그 힘을
 마을을 위한 활동으로 되돌려줄 방법을 늘 고민하는 학생이
 삶을 가꾸며 스스로 주인이 되는 학교. 푸르른 인천주원초가
 꿈꾸는 학교입니다.





바다와 미래를 잇는 교육의 요람,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해양생태교육관 개관

정태환 |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교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는 1926년 개교 이래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해양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산·해양 교육에 힘써왔다. 해양경찰파일렛과, 해양경찰엔지니어과, 아쿠아반려동물과, 식품외식산업과, 해군부사관과 등 다양한 전공 학과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 기술을 교육하며, 국제 승선실습과 글로벌 교류 학습, 취업 중심 프로젝트 수업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철학과 노력이 집약된 성과 중 하나가 바로 해양생태교육관의 개관이다. 이번 행사는



2025년 6월 17일(화), 교내 체육관과 한나루관에서 개관식이 열렸다. 1부 개관식은 체육관에서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해양생태교육 사업 경과보고, 내빈 소개, 교장 환영사, 교육감 축사, 학생 대표 감사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제막식 행사는 한나루관 1층 아쿠아리움과 2층 양서파충류실에서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으며, 이로써 새로운 교육 공간의 문을 열었다.

해양생태교육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양 문화와 환경 보존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열린 학습장이 될 예정이다. 특히 아쿠아리움과 양서파충류실은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실습 중심의 공간으로, 실제 관상어 사육, 특수반려동물 관리, 해양 생물 생태 관찰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은 아쿠아리스트 양성과 수산양식 전문가 교육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생태교육관은 실습의 공간으로써 전공 동아리 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양어반'은 담수 및 해수 관상어 사육과 스마트 양식을 접목한 시스템을 실습하며, '바리스타 동아리'나 '엔지니어링 마스터'와 같은 다른 전공 동아리 역시 교육관 시설을 활용해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관은 해양·환경·과학이 융합된 복합 학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인천해양과학고 김형진 교장은 개관식 환영사에서 "이번 해양생태교육관은 학생들이 직접 해양환경 보전에 참여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비전을 실현하는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을 계기로 인천해양과학고는 해양 교육의 범위를 교실 밖으로 확장하여, 바다를 이해하고 지키는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해양생태교육관이 학생들에게는 진로 탐색의 장이자 창의적 배움의 터전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해양환경 보전 의식을 확산시키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생태교육관은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양 문화와 환경 보존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열린 학습장이
될 예정이다.

”



인천하늘중-인도네시아 SMP Al-Hamidiyah 국제교류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의 생생한 현장으로 '문화로 잇는 우정'

허수미 | 인천하늘중학교 교사

인천하늘중학교가 인도네시아 SMP Al-Hamidiyah School과 함께 진행한 제3회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교류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의 온라인 수업과 1회의 대면 방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양국의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고 문화다양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5월 14일(수), 인도네시아 학생 10명과 교사 2명이 인천하늘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전통놀이, 전통음식 만들기, 스포츠 활동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하늘중 학생들은 제기차기, 딱지치기, 실뜨기 등 전통놀이 부스를 운영하며 영어로 활동에 관련한 설명문을 제작하고 시범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문화 교류에 나섰다. 특히 달고나 뽑기, 화전 만들기 체험 부스에서는 위생과 안전까지 고려한



학생들의 주도적 준비가 돋보였다.

또한, 교내에는 포토존을 만들어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하늘중 국제교류 동아리 학생들은 통역과 안내 역할을 맡아 원활한 소통과 따뜻한 환대를 이끌었다. 이를 통해 양국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인천하늘중학교의 세계시민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그간 진행된 이주배경학생 멘토링, 글로벌리더스쿨, 세계문화이해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기반이 되었다.

국제교류 담당 김미경 부서장은 “학생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었다”며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사전교육으로는 타문화 이해 수업과 문화 존중 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자신감 있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천하늘중학교 교장 정경순은 “문화 속에서 싹튼 우정이 학생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길 바라며, 세계와 연결된 교육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전하며 국제교류의 지속적인 확대를 약속했다.

인천하늘중학교는 앞으로도 세계시민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기 (2025. 7~9월)

김성민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이용창 위원장, 조현영 제1부위원장, 정종혁 제2부위원장, 김종배 의원, 이봉락 의원, 이오상 의원, 임지훈 의원, 한민수 의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임시회 운영 등을 통해 인천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인천광역시 의회를 구현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을지연습 격려

8. 20.(수) 교육위원회는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을지상황실을 방문해 임무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위기 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격려품을 전달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용창 위원장은 "4일간의 훈련기간동안 실제와 같은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2025. 9. 1.자 개교 추진현황 보고

8. 27.(수) 교육위원회는 2025. 9. 1. 개교 예정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인천신검단초등학교는 검단신도시 3단계 개발 구역 내 첫 신설 초등학교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창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8. 30.(금)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감 발의 2건 및 기타안건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심사한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외연수

9. 11.(목) ~ 9. 18.(목) 교육위원회는 선진 교육 사례 등 벤치마킹 방안 연구를 위해 영국 및 프랑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해외 대안학교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청소년 문화체험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실시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천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인천의정소식>

구독 안내



인천시의회의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의회 소식지
<인천의정소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의회사무처 032-440-6136

※ 우편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께는 무료로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인천의정소식>
바로 가기

포토리뷰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셜아이어워드 유튜브채널 '교육부문 대상' 수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학생 격려



인천세계로배움학교 인천-재외동포학생 국제학술 문화교류



인천광역시교육청-대한컬링연맹 업무협약 체결



청렴 반부패 추진기획단 회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가현초 모듈러교실 개소식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2025 글로벌 스타트업 에듀 써밋